

제지용 소포제 수요 “내리막길”

제지업계 신증설 완료 향후 계획도 전무 … 내수 740톤 규모

제지용 소포제시장이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소포제를 공급하는 기업은 20여개에 달하고 수요처인 제지업계도 최근 공급과잉으로 수요증가가 둔화추세에 있어 제지용 소포제시장은 정체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제지업계의 신·증설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고 93년말과 95년초에 증설 예정인 신평제지와 한솔제지는 판지생산을 계획하고 있기 때문에 소포제는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제지용 소포제의 국내수요는 연간 740톤인 것으로 알려졌는데 초지용이 670톤으로 90.5%를 차지하고 있으며 칼라용이 70톤으로 9.5%를 차지하고 있다.

초지용은 한국산노프코에서 240톤을 공급하여 전체 시장의 35.8%를 점유하고 있으며 한국정밀화학이 180톤으로 26.9%를 차지하고 있다.

초지용 백상지에서는 최근에 두성산업이 두각을 나타내고 있는데 BASF의 제지용 소포제를 120톤 정도 공급하여 17.9% 시장을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밖에 초지용 소포제는 국내기업들과 수입품이 130톤으로 19.4%를 점유하고 있는데 대경은 도아고 세이 제품을 12톤가량 공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칼라용 소포제는 산노프코에서 연간 30톤을 공급하여 전체 70톤 중 42.9% 시장을 점유하고 있으며 그밖에 대동상사, 정우정밀, 동방화학, 삼원산업, 대화 등에서 나머지를 공급하고 있다.

칼라용 중 판지와 속지는 실리콘소포제를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지용 소포제는 건조지류당 400~500ppm이 사용되는데 코팅 컬러 중에 함유되어 있는 폼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화학저널 1993/11/1>